

현대차, '상생캠페인'... 침체된 지역경제 살린다

전국 지역본부 주도 5개 영역 활성화 나서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전국 20개 지역본부 주도로 ▲지역 농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침체 업종 총 5개 영역에서 '상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평택시 농가에서 쌀, 축산물 등을 구매해 식자재 상자 '희망 꾸러미'를 만들어 평택시 거주 독거노인과 저소득 조손 가정 등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400여 개 가구에 전달했다.

이달 중으로 대전, 충남, 경북 지역에서 도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의료진에게 전달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시청에서 송성호 현대차 경기남부지역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 두번째) 등 현대차와 평택시 관계자들이 식자재 상자 '희망 꾸러미' 전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수유·구리·안양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앞치마, 물티슈 등 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연계 상생 활동과, 울산 관내 소규모 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블루핸즈에서 직접 나와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 연계 상생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끝없는 악플과의 전쟁



기지수첩

구서연 (산업부)

국내 포털이 건강한 댓글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정 분야의 댓글 공간 자체를 없애고,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을 공개하는 조치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신중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회사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연예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연예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네이버도 지난 3월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과 다편임을 공개했다. AI 기술로 악성 댓글을 가려내는 'AI 클린봇'도 함께 운영 중이다. 네이버도 7일부터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며 건강한 댓글 공간을 마련하는데 동참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포털에서는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

른 SNS 공간에서는 여전히 악성 댓글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심지어 늘고 있기 때문. 특정 공간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아닌 경우 포털에서의 악성 댓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연예 관련 뉴스인 경우에도 언론사가 사회 생활 영역으로 설정해두면 댓글을 다는 것이 가능하다.

댓글에 대한 여러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악성 댓글을 남기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평범한 사용자들이 댓글창에서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악성 댓글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포털에만 있다고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악성 댓글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진 개인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용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개인에 따라 특정 댓글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정과 규제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악성 댓글이 단순히 얕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 스스로 상기해야 할 것 같다. /yuni2514@

LG전자·디스플레이, 환경부와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포장재 사용 70% 줄일 것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포장재 재사용할 방법을 찾는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8일 경남 창원시 LG전자 창원 R&D 센터에서 환경부와 '포장재 재사용 가능성 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송재용 한국포장

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LG디스플레이 구매그룹장 최영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시범사업은 재사용 포장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뒀다. 환경부에 최적의 포장재 재사용 시스템 구축과 재사용 확대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와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 포장재다. LG전자는 완충재로 사용하던 발포스티로폼을 발포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종이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는 완충시트와 외부스티로폼 박스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포장재 사용을 70%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5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48년생** 고목에 꽃이 피어하니 좋은 일이 있다. **60년생** 가겠다는 사람은 붙잡는 게 아니다. **72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84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 37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둬라. **49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61년생** 자식에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 출중. **73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85년생** 소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하루.
- 38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0년생**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만족도가 낮다. **62년생**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74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86년생** 비대한 자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 39년생** 발등을 찍는 건 고개 탓이 아니라 내 탓. **5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친구를 잘 챙기자. **63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견어간다. **75년생** 포장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87년생**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더 힘들다.
- 40년생** 비상금이 적절한 곳에 쓰인다. **52년생** 선불리 증여를 결정하면 후회한다. **64년생** 인성이 어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76년생**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니 대비. **8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지금은 소중히.
- 41년생** 하나를 뿌리고 둘을 얻는다. **5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된다. **65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77년생** 물대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9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 4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54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6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틀어진다. **78년생** 일의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작은 약속도 어기지 마라. **90년생** 보라색과 숫자 2가 행운을.
- 43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 **55년생**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67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79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91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의 질투를 받는다.
- 44년생**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큰 조력자. **56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 **6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8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날. **92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좋다.
- 45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57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6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애하시길. **81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93년생** 조금씩 굴지 말고 느긋하게.
- 46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58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7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82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94년생**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이 좋겠다.
- 47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59년생** 현상유지만으로도 벅찬 하루 **71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은 금물. **83년생** 약속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마라. **95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김상희의四季

긍정하는 마음

옛날부터 사람의 일이란 관 뚜껑을 덮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 있다. 보통은 마주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아등바등 살아간다. 중요한 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다. 운이 좋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며 운이 좋다는 건 사주팔자가 좋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리라. 년월일시로 만들어지는 여덟 개의 기둥을 보면 운세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 팔자가 좋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 사주가 좋아서 나쁜 일은 없지만 모두가 인생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누구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재물이 많고 관운도 좋은 길운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한 걸 모른다. 목(木)이 왕 하여 토(土)의 비 위장을 극하니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돈이 많아도 인색하고 빠른 승진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평생을 굳고 찌푸린 얼굴로 살아간다.

그와 반대로 평범 이하의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돈은 항상 모자라고 다른 가족들도 얽혀산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돈이 모자라면 아끼면서 살고 일이 꼬이면 언젠가 잘 풀릴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얼굴에 미소를 보이고 대체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두 사람을 보면 사주나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어지면 팔자타령을 한다. 사주팔자가 나빠서 이렇게 안 풀린다고 여긴다.

팔자타령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돈에 인색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세가 따라 들어온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제출: 손호성 정답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7
4		5 1				6
	3		2			
2			3 8		9 1	
6						4
7 3		4 9				5
		1		2		
	8		7 4			3
9				5		

8			1 4	2			A
7 6		2		8			1
		3 9			6	C B	2 8
			3 6			B	C 9
5		7			1		8 4
	B			C			2
			1		5		3
9	4		C			7	6
B 7		A		2 8			
3 8 9 5	2			A 4			
2					C		6 1 5
	C		4	7 B			2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7호